

2~3세기 韓半島와 日本列島의 情勢와 交流에서 본 延烏郎 細烏女 說話의 歷史的 背景*

李文基**

目 次

1. 問題의 限定
2. 2~3世紀 韓半島와 日本列島의 情勢와 交流
3. 延烏郎 細烏女 說話의 歷史的 背景
4. 맺음말

1. 問題의 限定

주지하다시피 『三國遺事』 권1, 기이1, 延烏郎細烏女條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A.(1) 제8대 阿達羅王 즉위 4년 丁酉(서기 158년)에 동해 바닷가에 延烏郎과 細烏女가 부부로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오가 바다에 가서 바닷말[海藻]을 따고 있던 중, 갑자기 바위 하나[註: 혹은 고기 한 마리라고도 한다.]가 연오를 싣고 日本으로 가버렸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비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며, 곧 세위 왕으로 삼았다.[註: 『日本帝紀』를 살펴보니, 이 前後에 신라인으로 왕이 된 자가 없다. 그러므로 이 일본의 왕이라는 것은 邊郡의 小王이며, 일본의 眞王은 아닐 것이다.] 세오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음을 괴이히 여겨, 가서 찾다가 남편의 벗어놓은 신을 보고 그 바위에 올라가니, 바위는 또한 그전과 마찬가지로 세오를 싣고 日本으로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놀라서 의심하며 왕에게 아뢰니, 부부가 서로 만나 세오를 貴妃로 삼았다.

(2) 이 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日者가 아뢰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던 것이 지금 日本으로 가버린 때문에 이런 怪變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였다. 신라왕은 使者를 日本에 보내어 두 사람을 찾았다. 연오가 ‘내가 이 나라에 이른 것은 하늘이 시켜서 그리 된 것이니, 이제 어찌 돌아갈 수 있으리오. 그러나 朕의 妃가 가는 실로 짠 명주[細絹]가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될 것이오.’라고 하며 이에 그 명주를 내려 주었다. 사자가 돌아와서 아뢰니, 그 말에 따라 제사를 지냈더니 그 후에 해와 달이 옛날과 같아졌다. 그 명주를 御庫에 간직하고 나라의 보물로 삼았으며 그 창고를 貴妃庫라 이름하였다. 하늘에 제사지낸 곳을 迎日縣 또는 都祈野라고 했다.”¹⁾ (『三國遺事』 권1, 기이1, 延烏郎細烏女條)

* 이 글은 연오랑세오녀연구소 주최 제4회 한일국제세미나 「2개의 나라 하나의 신화」에서 발표한 「2~3세기 한반도와 왜의 교류와 연오랑 세오녀 설화의 역사적 배경」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 “第八 阿達羅王 卽位四年丁酉 東海濱 有延烏郎 細烏女 夫婦而居 一日延烏歸海採藻 忽有一巖 [一云一魚] 負歸日本 國人見之曰 此非常人也 乃立爲王 [按日本帝記 前後無新羅人爲王者 此乃邊郡小王 而非眞王也] 細烏怪夫不來 歸尋之 見夫脫鞋 亦上其巖 巖亦負歸如前 其國人驚訝 奏獻於王 夫婦相會 立爲貴妃 是時新羅日月無光 日者奏云 日月之精 降在我國 今去日本 故 致斯怪 王遣使求二人 延烏曰 我到此國 天使然也 今何歸乎 雖然朕之妃 有所織細絹 以此祭天可矣 仍賜其 使人來奏 依其言

위의 연오랑 세오녀 설화(아래에서는 연오설화 혹은 설화로 줄인다.)는 이야기의 전개에서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1)단락은 아달라왕 4년(158)에 동해 해변에서 부부로 살던 연오와 세오가 하늘의 조화로 일본에 건너가서 왕과 귀비가 되었다는 내용이며, (2)단락은 연오와 세오가 일본으로 가버리자 신라에서 해와 달이 빛을 잃는 변괴가 생겨 연오가 찾아간 신라 사자에게 내려준 명주를 신라로 가져와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결과 다시 원래대로 빛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약간의 문자상 출입이 있지만, 같은 내용의 설화는 『新羅殊異傳』을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徐居正의 『筆苑雜記』에도 수록되었으며, 『동국여지승람』·『영일읍지』를 비롯한 각종 지리서와 金宗直의 「迎日縣寅賓堂記」(『점필재집』 所收)·李裕元의 『林下筆記』 등에서는 영일현이라는 지명의 유래나 日月池의 위치와 연원에 대한 고증을 시도하면서 이 설화를 하나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설화는 한반도 동해변에 거주하던 한 부부가 일본으로 가서 왕과 귀비가 되었다는 특이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 자료인 『古事紀』·『日本書紀』와 『出雲風土記』를 비롯한 地方誌에도 이 설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지위가 높은 비범한 인물이 일본에서 유력자로 군림했다는 설화가 종종 수록되어 있어, 양자의 관련성을 염두에 둔 神話學 내지 說話學의 측면에서 집중적인 검토가 있어 왔다.²⁾

그런데 종래의 연구를 개관하면 이 설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고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허황되기 짝이 없는 架空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不信論’에서부터 내용 모두를 전부 사실로 인정하는 ‘絕對的 信憑論’³⁾까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자는 이 설화는 은유와 상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모종의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는 ‘批判的 信憑論’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곧 설화의 文面 전부를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두를 虛構로 돌려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비판적 신빙론’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설화의 내용 모두를 실제로 발생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내용 속에 비합리적이고 황당한 이야기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서술된 용어 중에도 역사적 사실과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산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기에는 ‘日本’이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본’이라는 국호가 사용되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7세기 후반을 소급할 수 없다.⁵⁾ 그러므로 2세기 중엽인 아달라왕 4년 당시에

而祭之 然後日月如舊 藏其納於御庫爲國寶 名其庫爲貴妃庫 祭天所名迎日縣 又都祈野”

2) 본 설화에 대한 연구사는 신상구, 「〈延鳥郎 細鳥女〉 說話의 研究史 考察」, 『연오랑세오녀연구소 제3회 한·일 국제세미나』, 2012에서 거칠게 검토된 바 있는데, 신화학 내지 설화학의 입장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3) 예컨대 세곡(누을, 해곡)에 그들이 살던 집터가 있다는 후대의 문헌자료(『迎日邑誌』)와 현지답사에서 채집된 口碑傳承을 종합하여 연오랑 세오녀를 실존인물로 비정한 견해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배용일, 「연오랑 세오녀 일월신화연구」, 『제1회 포항정신문화 학술심포지엄』(포항정신문화발전연구회), 2010, 6쪽; 이상준, 「연오랑 세오녀 설화의 현장」, 『연오랑세오녀연구소 제1회 한일국제세미나 논문집』, 2010, 30~31쪽.)

4) 비판적 신빙론으로 일괄하여 묶었지만, 설화 중의 한 부분을 중시하여 연오랑의 실체를 예족의 지배자나 제사장이라거나 선진문화인 제철기술의 소유자 혹은 제염기술의 보유자로 파악하는 견해 등 여기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공존한다.

5) ‘日本’이라는 국호의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일본고대사학계에서도 최대의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삼국사기』 권6 문무왕 10년(670)조에는 “倭國이 이름을 고쳐 日本이라 하였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호칭으로 후대에 改變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연오랑으로부터 받아 가져온 명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을 ‘迎日縣’이라고 했다는 서술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다. 『삼국사기』권34, 지리지1, 양주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남아있다.

B. 義昌郡은 본래 退火郡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의 興海郡이다. 領縣이 여섯이었다. 安康縣 …… 鬢立縣 …… 神光縣 …… 臨汀縣은 본래 斤烏支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의 迎日縣이다. 杞溪縣 …… 音汁火縣 ……⁶⁾ (『三國史記』 권34, 지리지1, 新羅 良州조)

여기서 보면 迎日縣은 斤烏支縣→臨汀縣을 거쳐 고려 태조 때에 개명된 명칭이므로, 고려의 지명이지 신라의 그것일 수가 없다. 따라서 신라 초기인 아달라왕의 시대에 이런 지명은 결코 사용될 수가 없다.⁷⁾ 뿐만 아니라 신라에서 현이라는 행정 단위가 설정되기 시작한 것은 7세기 초반 진평왕대 부터이므로,⁸⁾ 아달라왕 시대에 영일지역을 현으로 칭한 것도 잘못이다. 아달라왕대라면 영일현이 아니라 斤烏支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에 영일현도 후대의 改變이 가해진 증거가 된다.

이와 같이 연오설화에는 비합리적인 내용과 후대적 개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모두를 가공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는 없다. 어떤 설화라도 그 성립의 모티브에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 숨어 있다는 것이 설화학자들의 통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오설화가 성립된 배경에는 이 설화의 꼬투리가 될 만한 모종의 역사적 배경이 숨어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몇 가지 측면에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종래의 연구가 연오랑과 세오녀의 실제 파악에 집중되어 온 데 대한 연구사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⁹⁾

해 뜨는 곳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하였다.”라고 하여 신라가 일본으로 국호를 개칭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670년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학계에서는 논란이 있지만, 대략 天武期(673~686)에 천황이라는 칭호와 함께 일본이라는 국호가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2011년에 中國 西安에서 ‘你軍’이라는 백제 유민의 묘지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日本’이 기록되어 있어 크게 주목을 끌었다. 왜냐하면 “你軍”은 백제 유민으로 멸망 후 당의 웅진도독부에서 일본에 파견된 사신으로 활동하다가 결국 당으로 들어가 678년에 사망하였는데, 그의 墓誌에 일본이라는 국호가 기록되었다면 일본학계의 통설과 같이 天武期에 일본이라는 국호가 사용된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군묘지」의 ‘일본’은 국호가 아니라 東方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결국 백제를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어, 이 문제는 좀 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李成市, 「你軍墓誌 연구」, 『木簡과 文字』 10, 2013 참조.)

6) “義昌郡 本退火郡 景德王改名 今興海郡 領縣六 安康縣 …… 鬢立縣 …… 神光縣 …… 臨汀縣 本斤烏支縣 景德王改名 今迎日縣 …… 杞溪縣 …… 音汁火縣 ……”

7) 다만 김종직은 「迎日縣寅賓堂記」에서 영일은 신라 동해변의 고을로서 暘谷(맨 동쪽의 해 뜨는 곳)에 위치하여 그렇게 불렀는데, 고려 태조가 臨汀에서 영일로 명칭을 복구했다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어디에 근거한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迎日이 곧 ‘해맞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語義에서 유추한 추론이 아닐까 한다.

8)李文基, 「統一新羅의 地方官制 研究」, 『國史館論叢』20, 1990, 13~21쪽. 그리고 신라가 전국에 걸쳐 縣制를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은 신문왕대이다.

9) 연오랑과 세오녀의 실제에 대해서는 삼한시대 영일지역의 소국으로 비정되는 勤耆國의 首長說, 濊族首長說, 祭司長說, 제철기술 보유자설, 제염기술 보유자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피하기로 한다. 다만 필자는 연오랑과 세오녀가 기원전후 무렵부터 포항시 지역을 범위로 성립된 소국을 구성했던 일개 읍락의 지배세력으로 연오랑은 渠帥, 세오녀는 女司祭의 성격의 존재일 것이라는 가설을 갖고 있다.

첫째, 2세기 중엽 연오랑과 세오녀가 한반도 동해변 영일지역에서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로 가서 왕과 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당시를 전후한 시기에 그럴만한 정세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장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렵에 연오와 세오로 상징되는 영일지역의 주민집단¹⁰⁾이 살아 온 근거지를 버리고 일본열도의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정이 발생했고, 일본열도에서는 새로운 이주집단이 신개척지에서 지배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사정이 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집단의 일본열도 진출은 한반도와 일본열도 두 지역 사이에 교류와 접촉이 활발하지 않았다면 등장하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이에 먼저 2~3세기의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정세를 개관하고, 두 지역 사이의 교류의 실상을 밝혀, 연오설화 성립의 전체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둘째, 대부분의 설화에는 사건이 발생·전개되는 시기를 비교적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비해, 연오설화에는 사건의 발생 시기를 아달라왕 4년 정유년(서기 158)이라 하여 干支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왜 하필 아달라왕 4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일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아달라왕의 시대가 연오와 세오가 살아 왔던 곳을 떠나 일본열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영일지역에 발생했으며, 또 그들이 일본열도로 향해도 좋을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고, 나아가 그들이 떠나자 해와 달이 빛을 잃는 天變이 일어났다는 전승이 성립될 정도로 모종의 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왜 아달라왕 4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셋째, 공간적 무대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오설화에는 연오랑이 살았던 곳을 동해 바닷가로, 도착한 곳을 일본으로 막연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天變의 해결을 위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을 迎日縣 혹은 都祈野라고 하고 있어,¹¹⁾ 원래 연오랑 부부가 살았던 곳을 영일지역으로 비정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영일지역이 설화에 보이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 개연성을 갖추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달라왕을 전후한 시기의 영일지역의 상황을 살핀다면 이 설화의 공간적 무대가 하필 영일지역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종래 연구에서 주된 관심이 되어 온 연오와 세오의 실제 파악과는 문제의식을 조금 달리하여 연오설화의 역사적 배경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단 이 글에서 주된 사료로 이용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사는 그 신빙성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먼저 선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일단 사료에 기록된 연대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며,¹²⁾ 사건의 발생 등을 기록한 기사의 내용은 사실로 인정하고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어쩌면

10) 설화에는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설화 그대로 이들이 한 개인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신라 건국설화에서 박혁거세의 출현을 박씨 族團의 등장으로, 석탈해의 경주 진출을 석씨 族團의 동향으로 파악하듯이 연오랑 세오녀의 경우도 한 개인이 아니라 주민집단을 상징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1) 상당수 논자들이 祭天 장소로 기록된 迎日縣과 都祈野[“祭天所名迎日縣 又都祈野”]를 등치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곧 도기야를 영일현의 異名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천의례는 특정한 祭場에서 거행되었으므로 이는 迎日縣에 속한 특정 장소인 都祈野로 이해되어야 옳을 것 같다.

12) 설화에 제8대 아달라왕 4년으로 시기를 명기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 2~3세기로 시간 폭을 넓혀 잡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점이 이 글의 하나의 한계가 될 지도 모르겠다.

2. 2~3세기 韓半島와 日本列島의 情勢와 交流

(1) 두 地域의 情勢 概觀¹³⁾

1) 韓半島의 情勢

2~3세기대의 한반도는 늦어도 기원전후에 그 모습을 드러낸 소국들이 점진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통합을 거쳐 고대 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압록강 중류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가 국가체제를 발전시켜 고대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으며, 함경도에서 강원도에 걸친 동해안 지역에서는 옥저와 동예가 초기국가를 형성했지만, 고구려와 낙랑군의 강한 압력에 직면하여 자립과 복속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반도 서북지방에는 기원전 108년에 설치된 樂浪郡이 200여년이 넘도록 존속하고 있었고, 3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요동의 公孫氏 정권이 낙랑군의 남쪽 황해도 지역에 帶方郡이라는 새로운 군현을 신설하였다. 이 중국 군현들은 토착사회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중국적 성격과 고조선 이래의 전통적인 토착적 성격이 절묘하게 결합된 새로운 성격의 사회를 형성하게 되어, 1~3세기에 이르면 이른바 “樂浪人의 탄생”으로 상징되는 독특한 성격의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켰다.¹⁴⁾

한편 한반도 남부지방에서는 크고 작은 지역을 단위로 하여 ‘國’으로 불리는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초기 정치적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것들이 3개의 연맹체로 느슨하게 결집하여 馬韓·辰韓·弁韓의 三韓社會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삼한사회는 『삼국지』 동이전에 의하면, 마한이 54개국, 진한이 12개국, 변한이 12개국 등 도합 74개의 각각 자립성을 가진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내부에서는 소국 사이에 세력 차가 생겨나 유력한 소국이 주변의 약소국들을 정복·병합해 나가기도 했다. 이 당시의 강력한 소국으로서 마한의 目支國(충남 천안직산)과 伯濟國(서울 강동구), 진한의 斯盧國(경북 경주시), 변한의 狗邪國(경남 김해시)과 安邪國(경남 함안)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 중 백제국과 사료국은 주변 소국을 정복·병합하여 머지않아 백제왕국과 신라왕국으로 발전해 갔으며, 구야국과 안야국은 주변소국과 연맹하여 가야연맹의 맹주인 가라국과 그에 버금가는 유력 국가인 안라국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2~3세기대 한반도의 정세는 기원전 108년 한무제의 침입을 받아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그 땅에 漢郡縣이 설치되는 서북지방의 정치적 파동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고조선의 멸망과 낮은 외부세력에 의한 군현지배가 시작된 이후 고조선 유민은 물론 주변의 토착세력들도 변화의 격랑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기원전 1세기부터 확인되는 토착 주민의 변화상은 매우 다양하였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치사회의 변화·발전이었다.

정치적인 변화·발전 양상의 하나로 한군현의 지배가 시작되자 토착 주민들이 결속하여 중심세력을 형성하고 좀더 수준 높은 정치체로 발전하면서 한군현을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들 수 있다. 고구려의 성립과 초기의 발전 과정이 그 구체적인 사례가 된다. 압록강

13) 이 節은 말 그대로 2~3세기 두 지역의 정세를 개설적으로 개관한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주를 생략한다.

14) 오영찬, 『낙랑군연구』, 사계절, 2006, 159~189쪽.

중하류 유역 일대에는 기원전 4세기대부터 이전의 청동기문화를 계승 발전시킨 초기철기문화가 융성하였다. 이들은 濊貊族이라는 종족적 동질성과 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여러 지역에서 개별적인 정치적 사회를 형성하여 소국으로 발전하였고, 상호간 느슨한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를 보통 句麗社會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기원전 107년 압록강 중류 통구평야의 集安에 현도군의 郡治所가 두어지고, 주변의 개별 소국을 단위로 하여 縣이 설치되는 등 군현지배가 시작되자 구려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개별 소국들이 보다 결속을 강화하여 현도군의 지배에 저항했던 것이다. 『三國志』 東夷傳에 의하면, 기원전 75년에 현도군이 夷貊의 침략을 받아 통구평야의 집안으로부터 渾河 상류의 興京·老城 지방(현재의 永陵鎮 古城)으로 축출되었는데, 여기에 보이는 夷貊이란 곧 군현지배에 반대하여 결속을 강화하여 그 세력이 커진 구려사회의 소국들이었음은 재언할 필요도 없다. 물론 토착사회의 군현지배에 대한 저항은 압록강 중하류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설치된 지 20여년만인 기원전 82년에 이미 4개의 한군현 중 임둔군과 진번군이 폐지되었고, 두 군이 관할했던 여러 현들도 상당수가 폐지되어 토착세력의 수중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구려사회는 북부에서 이동해 온 주몽집단이 건국한 고구려 소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구려사회의 여러 소국들을 정복 병합하여 넓은 영역을 통치하는 왕국으로 발전하였으며, 수도를 卒本(현재의 桓因)에서 國內城(현재의 集安)으로 옮기고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거듭 중국 군현과 충돌하면서 2~3세기대에 이르면 마침내 강력한 고구려왕국을 성립시켰다. 기원전 2세기 말의 고조선의 멸망과 군현지배의 개시는 한반도 남부지역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 남부지방에는 기원전 7세기 이래 금속문화가 꽃피고 있었다. ‘松菊里 유형’으로 불리는 후기 청동기문화가 만개하면서 벼농사가 보급되고, 농업 잉여가 커져갔다. 이에 따라 주민이 늘어나고 마을의 규모가 커졌으며, 마을 둘레에 목책과 환호 등 방어시설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세력 차이가 생겨났고 마을 내부에서도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위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곧 정치권력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초보적 수준의 정치사회는 기원전 4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초기철기문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자체적인 통합과정을 거쳐 한반도 남부 각지에 작은 지역을 단위로 하는 소국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소국 사회는 기원전 2세기 말의 고조선의 멸망과 군현지배라는 정치적 변동에 따라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고조선이 멸망하자 많은 고조선 유민들이 군현지배에 반발하여 대거 남쪽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이다. 북쪽으로부터의 주민 이동의 물결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군현지배가 지속되는 동안 斷續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후한 桓帝와 靈帝시대(146~189)에는 한강 이남 지역의 소국들이 강성해져서 낙랑군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많은 주민들이 남부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¹⁵⁾ 파상적인 고조선 유민들의 한강 이남 각 지역으로의 이주는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고조선의 유민들이 산과 계곡에 나뉘어 살다가 六村으로 구성된 사로국이 형성되었다는 신라 건국 기사¹⁶⁾가 시사하듯이, 선진적인 문화와 정치사회를 경험한 고조선 유민을 비롯한 북으로부터의 이주세력이 중심이 되어 각지에서 새로운 소국을 형성하기도 했고, 이주민들이 소국에 합류하여 국가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견인차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 과정을 거쳐 서기 1세기대부터 한강

15) “桓·靈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三國志』 권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16) “先是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爲六村”(『三國史記』 권1, 혁거세 즉위조)

남부지역에서는 본격적으로 삼한사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조선 유민 중심의 주민들의 남하는 남부지역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기원전 2세기 말 낙랑군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철기문화가 유입되었고, 이 철기문화는 기원전 1세기부터 군현을 통하여 한반도 남부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이로써 남부 여러 지역에는 기원전 1세기 중엽부터 초기철기문화와는 수준을 달리하는 본격적인 철기문화가 꽃피게 되었다. 이를 고고학에서는 原三國時代라고 부르고 있다. 철기는 매우 실용적인 금속도구로서 특히 농기구와 무기의 제작에 널리 활용되었다.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이미 기원전 7세기 이후 청동기 후기(송국리유형 문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벼농사는 더욱 보편화되어 논이 확대되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서 소국들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경제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또 예리한 철제무기는 소국들 사이에 정복 전쟁을 활성화시켜 힘 있는 소국이 약소 소국을 정복·병합하여 넓어진 영토를 강력한 지배자가 통치하는 왕국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하여 3~4세기대에 이르면 백제와 신라라는 왕국과 가야연맹이 과거 삼한지역을 나누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는 것이다.

기원전 2세기 말 이래 주민의 대거 남하에 따라 전개된 한반도 남부지방의 커다란 사회 변동은 미리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 온 선주 토착민들의 입장에서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다 준 사건이었다. 철기문화라는 선진문물을 섭취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낸 것이 일종의 빛이었다면, 선진문물을 보유한 외래집단에 밀려 자신의 연고지를 빼앗기고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떠나야하는 그림자를 경험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한반도 주민들이 일본 열도로 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는데, 이들 이주집단은 상당수가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일지역에서도 한반도 남부지방의 정세와 마찬가지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북부로부터의 이주민의 도래와 철기시대의 금속문화 발전에 힘입어 영일지역에도 기원전후 무렵부터 초기 정치적 사회가 성립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일지역의 소국의 명칭을 『삼국지』 위서동이전 한조에서 진한 12국 중의 일 소국으로 기록된 勤耆國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영일의 옛 지명인 斤鳥支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이 주된 논거였다. 그러나 근기국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異說이 많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여, 근기국을 영일지역의 소국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원전후 이래 현재의 포항시 북구 일부와 남구를 영역으로 하는 소국-아래에서는 포항지역 소국으로 줄인다.-이 성립되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포항지역 소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소국의 일반적인 구조를 잠시 살펴기로 한다. 지형조건에 의해 구분되는 그리 넓지 않은 영역-보통 1개 군 범위-으로 이루어진 초기국가인 소국은 중심 邑落인 國邑과 그 예하의 복수의 邑落, 혹은 읍락의 규모에 이르지 못한 別邑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읍과 읍락에는 이미 계층분화가 진행되어 主帥와 渠帥가 지배자로 군림하였고, 지배세력인 豪民層과 피지배세력인 下戶로 표현된 일반 民과 노비로 분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소국은 국읍의 주수가 읍락의 거수들과의 협의를 통해 통치해 나갔다.

신라에 병합된 소국들은 지방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보통 하나의 郡으로 편제되었다. 국읍을 郡治所로 삼고 예하의 복수의 읍락에는 城村(후일의 縣)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신라의 군현제를 통해 소국의 구조를 유추해 낼 수가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현재의 포항지역에 설치된 郡은 退火郡이었으며, 그것은 郡

治所와 6개의 領縣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은 7세기 이후의 행정단위이며, 그 이전에는 성촌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므로 퇴화군은 군치소와 6개 성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퇴화군(군치소; 흥해읍 및 북구 洞지역)과 예하의 比火(경주시 안강읍 북부)·只畓(장기면·동해면·구룡포읍·호미면)·東仍音(신광면)·斤烏支(남구의 洞지역·연일읍·대송면·오천읍)·萑兮(기계면)·音汁火(경주시 안강읍 남부 성촌 비화 참조) 등 6개 성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퇴화군 영역을 곧 포항지역의 소국의 영역으로 換置할 수는 없다. 그 중 비화와 읍즙벌 성촌은 원래 또 하나의 소국인 읍즙벌국의 영역으로 생각된다. 신라가 군현 편성 과정에서 이들을 이례적으로 퇴화군에 영속시켰던 것으로 보인다.¹⁷⁾ 이를 제외한다면, 포항지역의 소국은 군치소가 두어진 국읍(흥해읍)과 예하의 4개의 단위 읍락(只畓·東仍音·斤烏支·萑兮)으로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흥해읍 지역이 소국의 국읍이었던 사실은 옥성리 고분군 출토 고고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¹⁸⁾ 옥성리 고분군의 초기 묘제로는 목관묘와 목곽묘가 확인되는데, 2세기말 무렵으로 편년되는 목관묘에서 우각형과수부호·주머니호 등과 함께 철검·철부 등이 출토되어 철기문화의 확산에 따른 지배세력의 성장이 간과된다. 이어 3세기에 조영된 목곽묘는 평면 형태에 따라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신라의 영향을 받은 ‘경주형 목곽묘’이다. 이들은 대형 목곽묘로서 다량의 철기가 부장되어 있어, 포항지역 소국의 주장급 무덤임이 인정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주형 목곽묘’의 축조가 늘어나고 있어 신라의 영향력이 이 지역에 침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역 소국의 주장세력의 위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은 물론이다. 이에 비해 현재까지의 고고자료에 의하면 영일지역은 소국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영일지역인 근오지와 장기지역인 지답은 포항지역 소국을 구성하는 하나의 읍락으로 존재했다고 하겠다.

이 포항지역의 소국은 2~3세기대에 이르러 두 방면으로부터 외부적 압력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사로국의 영향력 확대와 진출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방으로부터 새로운 이주민의 포항지역으로의 유입이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사로국은 파사 이사금대부터 주변 소국에 대한 정복에 나서 동왕 23년(102)에는 안강의 읍즙벌국, 삼척의 실직국, 경산의 압독국을 병합하였다. 소국의 국읍인 흥해에 인접한 안강까지 사로국의 세력권에 편입되면서 포항지역 소국도 점차 신라의 영향력 속으로 편입되어 갔다. 옥성리 고분군에서 ‘경주형 목곽묘’가 조영되고 있는 것이 좋은 증거인데, 드디어 4세기 후반 혹은 5세기에 이르면 경주의 특징적인 묘제인 積石木槨墳이 옥성리에 축조되고 있고, 여기서는 경주식 토기와 신라의 甲冑가 부장되는 등 신라의 색채가 완연해 진다.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본격적인 지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축조된 분묘가 파괴되고 새로운 묘역을 조성했던 사례가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는 지배세력의 교체를 반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2~3세기 및 그 직후의 포항지역에서는 사로국의 진출에 따라 지배세력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

17) 이로 인하여 소국인 읍즙벌국의 영역에는 郡이 설치되지 않았다. 인접한 왕경 구역의 팽창에 따른 읍즙벌국 영역의 잠식이 주요 원인이 아닐까 한다.

18) 이하 옥성리고분군에 대한 서술은 國立慶州博物館, 『玉城里 古墳群』 I·II·III, 1994; 嶺南文化財研究院, 『浦項玉城里古墳群』 I·II, 1998; 차순철, 「포항 흥해지역의 역사·고고학적 고찰」, 『浦項中城里新羅碑 발견 기념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09를 참조하였다.

있었다. 연오와 세오를 포항지역 소국의 하나의 읍락을 다스리는 거수와 여사제로 추정할 수 있다면,¹⁹⁾ 소국의 동요 과정에서 근거지였던 영일지역의 읍락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처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포항지역 소국에 대한 또 하나의 외부 압력으로는 북방으로부터 남하해 온 새로운 이주민들의 유입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이 전술한 후한 환제와 영제시대(146~189)에 있었던 많은 주민들의 남하 기록이다. 2세기 후반의 새로운 주민의 대거 남하는 한반도 남부지방 전체에 대한 변화를 야기하였고, 그 파동 속에서 포항지역에서도 신래 이주민이 선주 토착민을 驅逐하는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시사하는 것이 포항지역에서 출토된 ‘晋率善穢伯長’이라는 구리 인장이다. 현재 리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銅印(보물 560호)은 일제 강점기에 청색의 유리옥 10여점과 함께 현경북 포항시 신광면 흥곡리(구 마조리)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 동인은 중국의 진 왕조(265~316)가 주변 이민족의 군장에게 내려준 印綬 중의 하나로서, 이 인장이 포항지역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은 포항지역에 진으로부터 인수를 내려 받을 정도의 세력가가 있었고, 그가 지배하는 일정 수준의 정치적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들 정치세력이 곧 예족의 한 支派로서 새로 이주해 온 이주민 집단일 것이다. 이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포항지역의 정치사회는 크게 변화하였고, 선주 토착세력은 이들에게 밀려나 신개척지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연오랑 세오녀 집단의 일본 이주는 이와 같은 新來 移住民의 南下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2) 日本列島の 情勢

2~3세기대 일본 열도는 문화 선진지역과 후진지역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현저한 특징의 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진지역이었던 큐슈(九州)지역과 긴키(近畿)를 중심으로 한 혼슈(本州)지역의 정세를 개관하기로 한다.

일본 열도에는 기원 전후부터 각지에 생겨난 소국들이 분립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세 소국이 중심이 되어 주변 소국을 연합한 地域政權이 성립되고 있었다. 이어서 2세기 후반에는 지역정권과 소국들 사이에 ‘倭人爭亂’으로 불리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으며,²⁰⁾ 그 결과 야마타이국[邪馬臺國]이 주도하여 서부 일본 일대를 하나로 묶은 倭國으로 칭해지는 보다 큰 규모의 단일정권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4세기대에 이르면 거대한 前方後圓墳으로 상징되는 한 단계 강화된 왕권을 행사하는 야마토[大和] 조정 중심의 왜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2~3세기는 일본열도에서 소국 분립 상태가 해소되어 하나의 정권으로 향해가는 과도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면 2~3세기 까지 이르는 일본 열도의 정치적 변화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일본 열도에서는 기원전 5~4세기 이래 한반도의 후기 청동기문화(송국리유형)를 전수받아 성립된 야요이문화[彌生文化]가 발달하였다.²¹⁾ 야요이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농경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채집민에서 농민으로 변화한 사실이다. 한반도로부터 전래된 벼농사가 시작되었고 가축을 기르게 되었으며, 청동기와 철기가 거의 동시에 유입되어

19) 주 9) 참조.

20) 田中琢, 『倭人爭亂』(日本の歴史 2), 集英社, 1991 참조.

21) 최근 일본 고고학계에서는 야요이문화의 개시연대를 기원전 10세기로 상향 조정해 보는 견해가 종종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논거가 취약하여 그대로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금속문화가 전개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마을(村; 무라)의 규모가 커졌다. 그리하여 야요이 전기 말~중기에는 열도의 평야나 분지 혹은 하천유역을 단위로 하는 정치조직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이것이 중국 역사서에 “國”으로 기록된 소국이다. 소국의 내부는 촌과 촌 사이에 상하관계가 생겨났고, 촌의 내부는 首長層과 일반 民으로 분화되었다. 북큐슈나 야마구치현 서부 일대에서는 한반도 계통의 청동기-다뉴세문경, 세형동검, 세형동과 등-를 부장한 수장 무덤이 확인되고 있다.²²⁾

『漢書』 지리지에는 기원전 1세기 무렵에 왜가 100여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하였다.²³⁾ 이 가운데서 30여국은 통역이 가능하여 낙랑군에 신하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²⁴⁾ 또 『後漢書』 동이전과 光武帝紀에는 建武中元 2년(57)에 소국의 하나인 倭奴國이 후한에 조공을 바쳤는데, 광무제가 그 사자인 大夫에게 金印을 내려주었다는 기록이 있다.²⁵⁾ 또 安帝 永初元年(107)에는 倭國王 帥升 등이 生口 160인을 바치며 황제의 접견을 청하기도 하였다.²⁶⁾ 북큐슈와 긴키 등지에서 지역정권의 수준²⁷⁾에 이른 일부 소국 중에는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진취적인 國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00여국에 달하는 소국 분립상태에 있었던 일본 열도, 특히 서부 일본지역은 2세기 후반에 이르러 극심한 相爭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참조된다.

C-1. (후한 말) 桓帝와 靈帝 治世(147~189)에 倭國에 大亂이 있어 서로 공격하고 정벌하여 오랫동안 주인이 없었다. 그 때 한 여자가 있어 이름을 히미코[卑彌呼]라고 하였다. 나이가 많았지만 시집을 가지 않고, 鬼神道를 섬겨 사람들을 잘 유혹하였다. 이에 함께 세워 왕으로 삼았다. 모시는 여종이 1,000명인데 그 모습을 본 자가 드물었다. 오직 남자 한 사람이 음식을 공급하고 그 말을 전했다.²⁸⁾(『후한서』 권85, 동이전 왜조)

C-2. 그 나라(야마타이국)도 본래 남자로 왕을 삼았다. 칠팔십년 전에 왜국이 혼란하여 오랫동안 서로 공격하고 정벌하다가 함께 한 여자를 세워 왕으로 삼았는데 이름을 卑彌呼라고 하였다. 鬼神道를 섬겨 사람들을 잘 유혹하였다.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지만 남편이 없었다. 남자 동생이 있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좌하였다. 왕이 된 이래 모습을 본 사람이 적었다. 여종 1,000명이 모였으며, 오직 남자 한 사람이 음식을 공급하고 말을 전달했으며 거처하는 궁실이나 樓觀에는 城柵을 엄히 설치하고, 항상 무기를 가진 사람이 지키게 했다.²⁹⁾(『삼국지』 권30, 왜인전)

먼저 자료 C-1에서는 후한 환제와 영제 연간(147~189) 사이에 왜국에 대란이 일어났

22) 武末純一, 「<倭國>의 誕生」, 『東アジア世界の成立』(日本の對外關係 1), 吉川弘文館, 2010, 97~102쪽.

23) 이는 오사카부 가메이(龜井)유적과 오카야마현 다카즈카(高塚)유적 등에서 서기 14년에 처음 鑄造되기 시작하는 화폐인 貨泉이 출토되었던 점에서도 하나의 방증을 얻을 수 있다.

24) 『三國志』 권30, 위서 동이전 倭人條.

25) 이 금인은 에도시대 후쿠오카현 志賀島에서 실물이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는데, 그 印文은 “漢委奴國王”으로 되어 있다.

26) 『後漢書』 권85, 동이전 왜조.

27) 여기서 지역정권이란 1~2세기에 소국들의 분립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과 국 사이에 세력차가 생겨나 유력한 소국이 중심이 되어 주변 소국을 아울렀던 일정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상대적 으로 그 수준이 높아진 국가를 지칭한다.

28) “桓·靈間 倭國大亂 更相攻伐 歷年無主 有一女子名曰卑彌呼 年長不嫁 事鬼神道 能以妖惑眾 於是共立為王 侍婢千人 少有見者 唯有男子一人給飲食 傳辭語”

29) “其國本亦以男子為王 往七八十年 倭國亂 相攻伐歷年 乃共立一女子為王 名曰卑彌呼 事鬼道 能惑眾 年已長大 無夫婿 有男弟佐治國 自為王以來 少有見者 以婢千人自侍 唯有男子一人給飲食 傳辭出入 居處宮室樓觀 城柵嚴設 常有人持兵守衛”

다고 하였고, C-2에서는 히미코[卑彌呼]가 등장하기 7·80년전에 난이 일어나 相爭했다고 하였다. 대략 2세기 후반 일본 열도에서는 소국 간에 치열한 다툼이 상당 기간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국간의 공방전은 윗 사료 후반부에 보이듯이 결국 야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가 여러 소국에 의해 그들을 대표하는 왜국왕으로 추대되면서 종식되기에 이르렀다. 히미코는 247년에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그가 사망한 후 다시 남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러 소국들이 불복하여 다툼이 재발되자 13세인 히미코의 종녀 壹與를 여왕으로 세워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고 한다. 일여는 266년(태시 3)에 서진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친 바 있다.

왜국왕으로 추대된 야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는 인명이 아니라 태양의 靈威를 몸에 지닌 여성이라는 뜻의 首長의 칭호였다. 곧 鬼神道(혹은 鬼道)라고 불린 주술행위를 통해 통치를 행하는 샤먼 혹은 무적 성격이 강한 지배자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히미코의 왜국왕 추대는 야마타이국이 큐슈와 긴키를 포함하는 혼슈 서부 등 서일본 지역을 하나의 세력권으로 묶은 단일정권의 성립을 시사하고 있다.

야마타이국은 서일본 전체의 수장국으로서³⁰⁾ 一大率이라는 감찰관을 설치하여 여러 소국을 검찰하며 통치를 실현하였다. 여왕 히미코는 외국으로도 눈을 돌려 景初 3년(239)에는 중국의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親魏倭王의 칭호를 얻었고, 대방군과 한반도의 여러 나라에도 사신을 보내 교류를 시도하였다.³¹⁾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아달라왕 20년(173)에 왜의 여왕 卑彌乎가 신라에 사신을 보내 내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시 히미코의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 대한 교류 시도가 반영된 기사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이러한 2세기 말 이래 야마타이국이 중심이 된 서일본 지역의 단일정권으로서의 왜국은 점진적인 발전을 지속하여 4세기의 고분시대로 진입하면서 긴키지방에 기반을 둔 야마토 정권의 왜왕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³²⁾ 그러면 이러한 서일본 중심의 선진지역을 제외한 후진지역의 사정은 어떠했을까? 이를 해명할만한 문헌이나 고고자료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한반도 동해안과 비교적 교류가 활발한 왜국의 범위에서 벗어난 노토반도 이서지역 일대에는 반도에서 도래한 세력이 지배세력으로 성장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연오랑이 일본에서 국민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설화의 내용은 2~3세기 일본열도의 정세에 비추어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두 地域 간의 交流

앞에서 2~3세기대의 한반도와 왜의 정세를 개관하였지만, 약간의 시차를 두고 거의 비슷한 정치적 발전의 길을 걸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지역에서 정치조직 혹은 정치체가 성립·발전하는 과정에서 양자는 빈번히 상호 교류하였다. 교류의 내용은 인적 교류와

30) 야마타이국의 위치를 둘러싸고 “큐슈설”과 “키나이(畿内; 나라현)설”이 오랫동안 대립되어 왔다. 근래에는 고고학자들을 중심으로 키나이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31) “王遣使詣京都 帶方郡 諸韓國”.(『삼국지』 위서 동이전 왜조) 이 기사는 왜조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서술된 구체적인 사신 파견 기사를 종합한 서술로서, 경도는 위의 수도, 그리고 제한국은 한반도의 여러 정치세력을 말한다. 후술되듯이 『삼국사기』에는 아달라왕 20년에 왜의 여왕 卑彌乎가 사신을 보낸 기사가 보이는데, 신라가 제한국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32) 이상 야마타이국에서 야마토왕권으로의 변화에 대한 개관은 仁藤敦史, 「邪馬台國からヤマト王權へ」, 『東アジア世界の成立』(日本の對外關係 1), 吉川弘文館, 2010, 118~140쪽 참조.

물적 교류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문헌 자료를 통해 파악 가능하고, 후자는 두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유적 등 고고학적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교류의 양상을 개관하면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선진 문물이 전해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주하고 있음이 대세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곧 일본열도로부터 한반도로 전래된 문물과 한반도로 온 사람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3세기대까지 이르는 두 지역의 교류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은 또 하나의 힘든 작업이다. 그래서 이 節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두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의 諸樣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文獻資料로 본 人的 交流

지금도 일본열도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각종 고고자료에는 한반도에서 제작된 유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는 물건 자체만 도입된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이주한 주민들에 의해 일본열도로 반입된 것이다. 따라서 고고학에서 확인되는 물적 교류의 증거는 실은 인적 교류의 증거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주로 문헌 자료를 통해 두 지역의 인적 교류 양상을 정리하기로 한다.

『일본서기』에는 사실로 믿기 어려운 神代紀부터 한반도에서 건너와 열도에 정착하여 조정에서 활약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다만 초기의 기사들은 『일본서기』의 편찬 과정에서 그 연대를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에 그 實年代는 2周甲, 곧 120년을 내려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컨대 신공기 49년조에는 이른바 왜의 가라 7국 평정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바, 이 사료는 백제 근초고왕의 가야지역 진출 사실을 마치 왜의 활동인 것처럼 왜곡·改變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서기』 상의 연대는 249년이지만 實年代는 120년을 내린 369년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래서 일단 『일본서기』 신대기부터 神功皇后紀까지 한반도로부터 건너온 인물들에 대한 기사를 摘出하여 2~3세기대의 한반도와 왜 두 지역 간의 인적 교류의 대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일본서기』 초기기사의 인적 교류

시기	주인공	출발지역	도착지역	교류 내용	비고
신대	素戔鳴尊	新羅國 曾尸茂梨	出雲國	이주	
송신 65	蘇那曷叱知	任那國	畿內	조공 사신	
송신	都怒我何羅斯等	意富加羅	穴門→出雲- 畿內	이주→귀국	수인기 2년조
수인 3	王子 天日槍	新羅國	播磨國→近江 國→但馬國	귀화	
신공섭정전 9	神功皇后	和珥津	新羅	신라 공격	
신공 5	汗禮斯伐·毛麻利 叱智·富羅母智	新羅國	倭 朝廷	사신	對馬에서 微叱許智 탈출
신공 5	葛城襲津言	倭	對馬島	미 질 허 지 호송	渡來人
신공 46	斯摩宿禰	倭	卓淳國	사신	종자 백제 방문
신공 47	久氏·彌州流 ·莫古	百濟	倭 朝廷	사신	
신공 47	新羅 調使	新羅	倭 朝廷	사신	

<표 1>에 보듯이 4세기대에 이르는 두 지역의 인적 교류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격적인 국가체제가 형성되기 이전 단계에는, 설화의 형태이지만,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고, 신라·백제·가라 등 고대 왕국이 출범한 이후에는 사신 교환이나 전쟁 등을 통한 접촉이 많아졌다. 이런 추세에서 보자면 2~3세기대는 아직 한반도 남부 지역의 정치체가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기 이전이므로, 한반도로부터 일본열도로 이주하는 주민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삼국사기』 초기기사에는 왜로부터 한반도로 건너와 활동했던 인물도 보인다. 瓠公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D. 혁거세 거서간 38년(서기전 20) 봄 2월에 瓠公을 馬韓에 보내 禮訪하였다... 호공이라는 사람은 그 종족과 姓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본래는 倭人이었다. 처음에 박을 허리에 매고서 바다를 건너온 까닭에 瓠公이라 불렀다. 『三國史記』 권1, 혁거세거서간 38년조)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호공은 원래 왜인으로서 박을 허리에 매달고 바다를 건너왔다는 전승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는 신라 조정에서 重臣으로 활동하고 있다. 혁거세왕 38년에 사신으로 마한을 다녀왔고, 탈해왕 2년(58)에는 최고의 벼슬인 大輔에 올랐다. 탈해왕 9년(65)에는 그가 왕명을 받아 始林(현재의 鷄林) 숲속에 가서 금궤에 들어 있던 김씨 시조 關智를 찾아냈다는 일화가 전하고 있다.

그리고 왜인 출신인 호공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탈해 역시 한반도와 일본열도 두 지역 간의 인적 교류에서 빠트릴 수 없는 인물이다.

E-1. 탈해는 본래 多婆那國에서 태어났는데, 그 나라는 倭國의 동북쪽 1천 리 되는 곳에 있다. 앞서 그 나라

왕이 女國王의 딸을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는데, 임신한 지 7년이 되어 큰 알을 낳았다. 그 왕이 말하기를 “사람으로서 알을 낳은 것은 상스럽지 못하니 마땅히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 여자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궤짝 속에 넣어 바다에 띄워 가는 대로 가게 맡겨두었다. 처음에 金官國의 바닷가에 이르렀으나 금관국 사람들이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서 거두지 않았다. 다시 진한의 阿珍浦 어구에 다다랐다. 이 때는 시조 혁거세가 왕위에 오른 지 39년 되는 해(서기전 19)이다. 그때 바닷가에 있던 할멈이 줄로 끌어 당겨서 해안에 매어놓고 궤짝을 열어 보니 작은 아기가 하나 있어 그 할멈이 거두어 길렀다. 장성하자 신장이 아홉 자나 되고 풍채가 빼어나고 환했으며 지식이 남보다 뛰어났다. …… 탈해는 처음에 고기잡이를 業으로 하여 그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한 번도 게으른 기색이 없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骨相이 특이하니 마땅히 학문을 하여 공명을 세워라.”고 하였다. 이에 오로지 학문에만 힘써 地理까지도 겸하여 알았다. 양산 아래 瓠公의 집을 바라보고는 길지라고 여겨 속임수를 써서 그곳을 빼앗아 살았는데, 그 땅은 후에 月城이 되었다.(『三國史記』 권1, 탈해왕 즉위조)

위의 자료는 탈해 설화의 일부인데, 『三國遺事』 기이 1, 제4대 탈해왕조에는 이보다 훨씬 자세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료에 의하면 탈해는 원래 왜국의 동북쪽에 있던 다과나국 출신이지만, 어머니가 여국왕의 딸이었다고 하였다. 여국왕은 『삼국지』동이전 동옥저조에 나오는 동해 바다 가운데 있었다는 여인국의 왕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지만,³³⁾ 왜도 앞에서 보았듯이 여왕국으로 지칭되었으므로, 모계가 왜의 어떤 소국의 왕실과 연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요컨대 탈해를 왜인 출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왜와 관련있는 지역 출신으로 호공과 마찬가지로 바다를 건너 신라로 이주해 온 인물이었다.

그런데 자료 E-1의 뒷부분을 보면, 그가 신라의 서울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월성에 있었던 호공의 집을 속임수를 써서 빼앗았다는 에피소드가 덧붙여져 있다. 같은 내용이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E-2. 탈해가 지팡이를 끌고 두 종을 데리고 吐含山 위에 올라가서 돌무덤을 만들고, 그곳에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성중에 살 만한 곳이 있는가 하고 바라보았다. 마치 초승달 같은 한 산봉우리가 보이는데 지세가 오래 살 만한 곳이었다. 이에 내려와서 그곳을 찾으니 바로 瓠公의 집이었다. 이에 속이는 꾀를 써서 숫돌과 숯을 몰래 그 곁에 묻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그 집 문 앞에 가서 “이것은 우리 조상 때의 집이오.”라고 말하였다. 호공은 그렇지 않다 하고 서로 다투었으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 이에 관가에 고했다. 관가에서 탈해에게 “이것이 너의 집이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라고 하자, 탈해는 “우리는 본래 대장장이였는데, 잠시 이웃 고을에 나가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빼앗아 살고 있으니, 땅을 파서 조사해 보면 된다.”라고 답하였다. 땅을 파보니, 과연 탈해의 말대로 숫돌과 숯이 나왔으므로 이에 그 집을 빼앗아 살게 되었다.(『三國遺事』 권1, 제4대 탈해왕)

이 에피소드는 탈해가 지략이 뛰어났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만, 외래인인 탈해가 신라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호공의 지원을 받았음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말하자면 바다를 건너 신라에 정착한 외래인인 탈해는 자신이 철을 다루어 온 기술자 가문 출신임을 부각시키며, 먼저 정착한 왜인 출신 호공의 지원을 받아 결국 왕위에까지 올랐던 것이다.

또 다음과 같은 기사도 보인다.

F. 벌휴이사금 10년(193) 6월에 왜인이 크게 굶주려,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사람이 천여 명이나 되었다.(『삼국

33) 三品彰英, 『日鮮神話傳説の研究』, 1963, 273쪽.

사기』 권2, 벌휴이사금 10년조)

벌휴왕 10년(193) 6월에 왜에 흉년이 들어 왜인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무려 1,000여 명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신라로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라를 찾아 온 왜인들이 식량을 구한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지만, 그대로 신라에 눌러앉아 살게 된 것으로 봄이 순리이지 싶다. 기아의 고통에 시달린 곳으로 되돌아가기가 싫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한일 양국의 역사서에 기록된 초기 기사에는 두 지역의 주민이 상호 이주하여 정착하기도 하는 등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현상은 2~3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2) 考古資料를 통해 본 交流

한반도의 신석기시대와 일본의 죠평시대에 해당하는 출토 토기자료를 보면, 두 지역 사이에 일정한 교류가 행해졌음이 드러난다. 큐슈지역 몇몇 유적에서는 한반도 계통의 빗살무늬토기가 중심 토기로 출토되고 있으며, 부산 동삼동 패총유적에서는 반대로 죠평계 유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시작된 두 지역의 교류는 1세기 이후의 야요이시대 중후기에 이르러 더욱 활발해졌다. 북부 큐슈와 중부 큐슈 그리고 야마구치현 서부지역에는 한반도의 초기철기시대 토기가 자주 출토되고 있다. 예컨대 후쿠오카시 모로오카(諸岡) 유적에서는 토광묘 18기 중 12기에서 50개체의 한반도 초기철기시대의 민무늬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사가현 하부(土生) 유적에서도 야요이 중기 토기와 함께 한반도 계통의 변형 민무늬토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환호가 둘러쳐진 거주구역이 있는 한반도 계통의 마을 유적도 큐슈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문화의 전파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초기철기문화에 익숙한 주민들이 대거 일본 열도로 이주했던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 남부지방에도 야요이 토기를 비롯한 야요이 문화 계통의 유물이 종종 출토되며, 부산시 萊城 유적과 경남 사천시 늑도의 마을 유적은 야요이 집단이 옮겨와 살았던 마을로 해석되고 있다. 요컨대 기원전후 시기의 북부큐슈와 한반도 남부지역은 한반도 측이 우세한 가운데 상호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두 지역의 교류는 2~3세기대에도 여전히 지속되었음은 물론이다.³⁴⁾

2~3세기대 두 지역간의 교류는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두 가지의 방증자료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이즈모·타지마·오키 등 동해 연안 지역에 많은 신라계 神社가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신라계 신사의 존재는 신라와 일본 동해 연안 지역의 활발한 교류관계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³⁵⁾ 둘째 일본열도 각지에서 출토된 紀年銘이 있는 중국제 동경 역시 일본열도와 한반도 나아가 중원과의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물적 증거이다. 출토된 기년명 동경 자료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³⁶⁾

34) 이상의 서술은 武末純一, 「<倭國>의 誕生」, 『東アジア世界の成立』(日本の對外關係 1), 吉川弘文館, 2010을 참조하였다.

35)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많지만, 근래의 연구인 出羽弘明, 『新羅の神々と古代日本: 新羅神社の語る世界』, 同成社, 2004 참조.

36) <표 2>의 작성에는 大手前大学史学研究所, 『弥生・古墳時代銅鏡出土状況資料集: 日本考古学協会

<표 2> 일본열도 출토 기년명 중국제 동경자료

순서	연대	유물명	출토유적	문헌과의 관련성
1	서기 14년 初鑄	貨泉	오사카부 龜井유적 · 오카야마현 高塚 유적	기원전후 왜의 100여국 중 30여국 낙랑군에 조공(『후 한서』)
2	57년	漢倭奴國王 金印	후쿠오카현 志賀島	建武中元 2년(57) 왜노국왕 이 후한에 조공, 광무제 인 수 하사(『후한서』)
3	184~189년	中平□年(184~ 189)銘 大刀	나라현 東大寺古墳	환제~영제시대(147~189) 왜국 대란 발생(『후한서』)
4	235년	魏 靑龍3年銘 方 格規矩四神鏡	교토부 大田南 5호 분·오사카부 安滿 宮山高분	景初2년(238) 야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가 위에 조공(『 삼국지』)
5	238년	吳 赤烏元年銘 神 獸鏡	야마시타현 鳥居原 고분	
6	239년	魏 景初3年銘 畫 文帶神獸鏡	오사카부 和泉黃金 塚고분	
7	239년	魏 景初3年銘 三 角緣神獸鏡	시마네현 神原神社 고분	
8	240년	魏 景初4年銘 三 角緣盤龍鏡	교토부 廣峯15호분 · 辰馬고고자료관 소장품	正始원년(240) 대방군태수 弓濲이 梯儻 등을 보내 조서 · 인수를 내려줌(『삼국지』)
9	240년	魏 正始元年銘 三 角緣神獸鏡	군마현 柴崎고분· 효고현 三尾고분· 야마구치현 竹島고분	
10	244년	吳 赤烏7年銘 神 獸鏡	효고현 安倉고분	· 正始4년(243) 왜왕이 위에 생구·倭錦 등을 바침(『삼국 지』) · 정시8년(247) 히미코가 대 방군에 구노국(狗奴國)과의 交戰을 알림, 히미코 사망(『 삼국지』)

<표 2>에서 보듯이 3세기까지의 일본열도 출토 기년명 중국제 동경자료는 대략 7례가 확인된다. 이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유입되었든 舶來品이며, 일본열도의 정치세력이 한반도 및 중원과의 교류의 결과물이다. 이 중에는 중원왕조로부터 직접 입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대세는 6·7·8·9번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반도 서북부의 낙랑군과 대방군을 통한 간접적인 입수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기년명 중국제 동경 또한 2~3세기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교류를 보여주는 방증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2010年度兵庫大会第2分科会「古墳出現過程と銅鏡」-, 2010; 森浩一 編, 『鏡』, 社会思想社, 1978; 川勝守, 『三角緣神獸鏡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2012를 참조하였다.

3. 延鳥郎 細鳥女 說話의 歷史的 背景

앞장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2~3세기대의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정세를 개관하고, 두 지역 사이에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살펴보았다. 한반도 동해변에 살던 연오랑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귀비가 되었다는 설화의 내용은 이 시기 두 지역의 정세와 교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이주세력이 특정 지역에서 지배세력으로 성장하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있음직한 사건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합리적인 설화의 내용 전부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은 올바른 학문적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이 사건이 반드시 아달라왕 4년에 발생했다고 믿거나, 영일지역에 살던 두 부부의 일본 이주로 해와 달이 빛을 잃는 일이 일어났고 일본의 왕이 된 연오가 내려 준 細綱를 가져와 하늘에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원래대로 회복되었다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비과학적·비학문적 접근 자세로 보이는 것이다. 오히려 2~3세기라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왜 하필 아달라왕대와 영일지역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문제의식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이 章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時間的 背景 : 왜 阿達羅王의 時代인가?

설화에는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건너간 시기를 아달라왕 4년(157) 정유년으로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자 해와 달이 빛을 잃는 天變이 발생했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3세기라면 한반도의 주민이 일본 열도로 이주하여 유력한 지배자로 성장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2~3세기 중 어떤 시점이라도 설화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설화에서는 왜 하필 아달라왕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한 것일까?

먼저 설화의 연오가 바위(혹은 물고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하자 그 나라 사람들이 연오를 비범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추대했다는 이야기를 주목해 보자. 이는 신라의 朴赫居世가 六村長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이나 가야의 金首露가 九干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는 모습과 흡사하여 흥미롭다.

고대의 건국설화를 一瞥하면, 최고 지배자에 오르는 방식으로 ‘征服型’과 ‘推戴型’이 있다. ‘정복형’이 고구려 주몽의 경우처럼 외래 이주세력이 선주 토착세력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정복·진압하여 지배세력으로 자리잡는 방식이라면, ‘추대형’은 외래인이 선주 토착민과 평화적으로 융합하여, 선진문명 등의 자신들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지배자가 되는 방식이다. 연오·박혁거세·김수로 등은 ‘추대형’에 해당하는 셈이다.

연오설화가 ‘추대형’에 해당되는 것은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해 간 세력이 일본의 선주민과 평화적으로 융합되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필 아달라왕의 시대가 설화의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이유 중의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上古期(혁거세왕~지증왕) 기사 중에서 왜에 대한 기록을 뽑아 정리한 것이다. <표 3>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왜의 침입, 약탈, 노획 등 전쟁 혹은 대립 갈등 기사가 대부분이고, 평화적인 교섭·교류 기사는 39건 중 4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초기기사는 여러 가지 한계가 뚜렷한 사료로서 이 모두를 그대로 신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왜와

신라가 우호적인 교섭이나 교류보다 대립과 갈등의 시기가 훨씬 길었다는 대세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³⁷⁾

대립과 갈등이 대세였던 초기 신라와 왜의 관계에서 4건의 우호적인 교섭 기사가 보이는데, 그 중 아달라왕대에 2건이 집중되어 있다. 즉 아달라왕 5년(158)과 20년(173) 두 차례에 걸쳐 왜가 사신을 보내 來聘했다는 것이다. 특히 20년에 사신을 보낸 주인공은 앞에서 본 ‘왜인쟁란’을 끝내고 평화 시대를 이끌어 낸 야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卑彌呼/卑彌乎] 바로 그 사람이다.³⁸⁾ 말하자면 아달라왕의 시대는 신라 상고의 역사 중 왜와의 관계가 가장 평화롭고 우호적인 시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를 배경으로 연오가 일본으로 건너가 추대를 통해 왕이 되었다는 설화가 등장하게 되었을 수 있다. 요컨대 아달라왕대가 설화의 시간적 배경으로 기록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시대가 신라와 왜의 관계가 가장 우호적이었던 시기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3> 『三國史記』新羅 上古期 記事의 倭 關係 記錄

순서	시기		기사 내용	기사의 성격	
				전쟁	교섭
1	혁거세 8	BC.50	왜병이 변경 침입→퇴각	●	
2	남해 11	AD.14	왜의 병선 100여척 해변 민가 약탈 →육부병 방어	●	
3	탈해 5	59	왜국과 우호관계→사신 교환		●
4	탈해 17	73	왜인 목출도 침입→각간 우오 전사	●	
5	지마 10	121	왜인 동쪽 변경 침입	●	
6	아달라 5	158	왜가 遣使 來聘		●
7	아달라 20	173	왜 여왕 卑彌乎가 遣使 來聘		●
8	별휴 10	193	기근에 빠진 왜인 1,000여명이 음식을 구하러 음	●	
9	나해 13	208	왜인의 변경 침입→이별찬 이음 방어	●	
10	조분 3	223	왜병의 금성 포위→조분왕이 격퇴	●	
11	조분 4	233	5월 왜병이 동쪽 변경 노략질	●	
12			7월 이찬 우로가 沙道에서 火攻으로 대승	●	

37) 이에 대해서는 연민수, 「5세기 이전 신라의 대외관계 -『삼국사기』 왜 관계 기사를 중심으로-,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1998, 344~370쪽 참조.

38) 다만 來聘 시기가 반드시 175년(아달라왕 20)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기사의 연대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히미코가 대란을 끝내고 왜국왕으로 추대된 시기는 대략 2세기 말로 추정되며, 그가 대외교류에 적극 나선 시기는 <표 2>를 보면 대략 238년~243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75년이라는 연대는 짧게는 20여년, 길게는 50여년 정도 소급된 것으로 생각된다.

13	침해 3	249	왜인이 서불한 우로 살해	●	
14	침해 7	253	우로가 왜의 사신에게 실언하여 火刑당함	●	
15	유례 4	287	왜인의 일례부 습격→백성 1,000여명을 포로로 잡아감	●	
16	유례 6	289	왜의 침입 소식에 배와 무기 손질	●	
17	유례 11	294	왜병이 장봉성 공격→패배	●	
18	유례 12	295	왕이 왜를 공격하려다가 서불한 홍권의 만류로 중지	●	
19	흘해 37	346	왜병이 풍도의 민가 약탈→금성 포위→격퇴	●	
20	나물 9	364	왜의 침입→북병으로 격퇴	●	
21	나물 38	393	왜병이 5일간 금성 포위→격퇴	●	
22	실성 1	402	왜와 우호를 통하고 미사흔을 불모로 보냄		●
23	실성 6	407	왜인이 동쪽과 남쪽 변경 침범→포로 100명 약탈해 감	●	
24	실성 7	408	왜인이 대마도에 병영 설치→대마도 공격준비→미사흔의 만류로 중지	●	
25	실성 14	415	풍도에서 왜인을 격파함	●	
26	눌지 2	418	왕제 미사흔이 왜로부터 도망쳐 귀국함	●	
27	눌지 2	418	미사흔 귀국 후 박제상 왜국에서 처형당함	●	
28	눌지 15	431	왜병이 동쪽 변경 침입 후 명활성 포위→스스로 퇴각	●	
29	눌지 24	440	왜병이 남쪽과 동쪽 변경 침입→포로를 잡아감	●	
30	눌지 28	444	왜병이 10일간 금성 포위→퇴각→눌지왕의 추격전 실패	●	
31	자비 2	459	왜병이 병선 100척으로 침입→월성 포위→격퇴	●	
32	자비 5	462	왜인이 활개성 습격→포로 1,000명 약탈	●	
33	자비 6	463	왜인이 삼랑성 침입→장군 벌지·덕지가 격퇴, 왜의 침입로에 2성 축조	●	
34	자비 19	476	왜인이 동쪽 변경 침입→장군 덕지가 격퇴, 200명 노획	●	

35	자비 20	477	왜인이 다섯 길로 침입→스스로 퇴각	●	
36	소지 4	482	왜인이 변경 침입	●	
37	소지 8	486	왜인이 변경 침입	●	
38	소지 19	497	왜인이 변경 침입	●	
39	소지 22	500	왜인이 장봉진 공격→합락당함	●	
합계			-	35회	4회

또 다른 이유와 관련하여 설화의 두 번째 단락을 주목할 수 있다. 골자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天變이 일어났는데, 이를 연오와 세오의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것이다. 해와 달이 빛을 잃는 현상이란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곧 일식과 월식이 일어났다는 의미임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달라왕대에 실제로 일식이 있었던 사실이 이 설화의 모티브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찍부터 나온 바 있다.³⁹⁾ 공교롭게도 『삼국사기』에는 아달라왕 13년에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정월 초하루의 일식이라면 당시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 할 대사건이었음에 틀림없고, 따라서 그것이 설화의 모티브가 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의 시대에도 일식은 종종 일어났다. 『삼국사기』 신라 상고기 기사에서 일식·월식·星變·천둥과 우뢰 등의 천변 기사를 뽑아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39) 대표적으로 이연숙, 「연오랑 세오녀에 대한 일고찰」, 『국어국문학』 23, 1959; 소재영, 「연오·세오 설화고」, 『국어국문학』 36, 1967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표 4> 『三國史記』 新羅 上古期 記事의 天變 記錄

순서	시기	日蝕	月蝕	星變	천둥/우뢰/ 벼락
1	혁거세 4(서기전 54)	●			
2	동 9(서기전 49)			●	
3	동 14(서기전 44)			●	
4	동 24(서기전 34)	●			
5	동 30(서기전 28)	●			
6	동 32(서기전 26)	●			
7	동 43(서기전 15)	●			
8	동 54(서기전 4)			●	
9	동 56(서기전 2)	●			
10	동 59(서기 2)	●			
11	동 60(서기 3)				●
12	남해 3(서기 6)	●			
13	동 13(16)	●			
14	동 20(23)			●	
15	동 31(54)			●	
16	탈해 3(59)			●	
17	동 23(79)			●	
18	파사 6(85)			●	
19	파사 25(104)			●	
20	지마 9(120)			●	
21	동 13(124)	●			
22	동 16(127)	●			
23	동 17(128)			●	●
24	일성 8(141)	●			
25	동 10(143)			●	●
26	동 16(149)			●	●

27	동 20(153)			●	
28	아달라 13(166)	●			
29	별휴 8(191)			●	
30	동 10(193)	●			
31	동 11(194)	●			
32	동 13(196)				●
33	나해 5(205)	●		●	
34	동 6(206)	●			
35	동 10(205)		●	●	
36	동 19(214)			●	
37	침해 10(256)	●			
38	동 14(260)			●	
합계		18회	1회	19회	5회

<표 4>를 보면 서기전 1세기부터 3세기 후반까지 총 18회의 일식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아달라왕대에는 단 1회의 일식이 있었다. 또 정월 초하루 일식은 혁거세왕 56년(서기전 2)에도 발생했다는 기사가 남아 있다.⁴⁰⁾ 그렇다면 아달라왕 13년(166) 정월 초하루에 실제로 일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⁴¹⁾ 그것을 설화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이유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필자가 유의하고 싶은 것은 역사 속의 천변 기록이 가진 상징성이다. 古人들은 각종 천재지변이 국왕을 비롯한 지배세력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경고로 생각했고, 천재지변은 그들에게 발생할 큰 변화나 불운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⁴²⁾ 그러므로 설화에서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아달라왕과 그 왕실의 불길한 미래를 예고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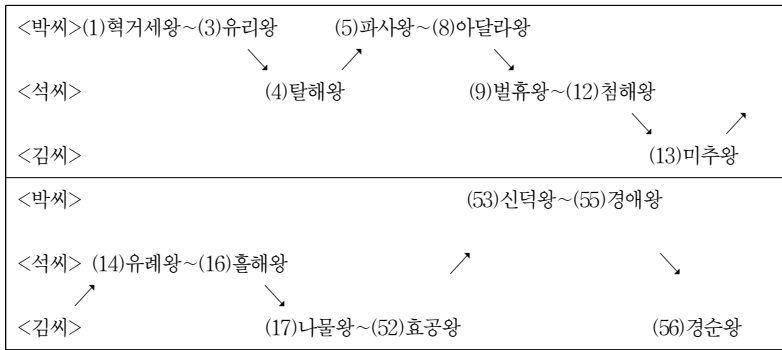
이런 입장에 서면 아달라왕대 왕실의 불길한 미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초기 신라에서의 王系の 변화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王曆篇에 보이듯이 초기의 신라왕은 몇 차례 왕계의 변화를 겪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5>이다.

<표 5> 新羅의 王系 變化

40) “春正月辛丑朔 日有食之”(『三國史記』 권1, 赫居世居西干 56년조)

41) 한편 아달라왕대의 일식 발생 시점을 『후한서』 환제본기의 ‘永壽三年 閏四月 庚申晦 日有食之’에 근거하여 아달라왕 4년(157)으로 고쳐보는 주장도 있지만, 따르기는 어렵다.

42) 李熙德, 「新羅時代の 天災地變」, 『東方學志』 82, 1993 참조.



<표 5>에서 보듯이 신라 초기 왕계는 박씨가 시조 (1)혁거세왕에서 (3)유리왕까지 계승하였고, 그 뒤를 (2)남해왕의 사위였던 (4)탈해왕이 석씨로서 왕위에 올랐다가 다시 (5)파사왕부터 (8)아달라왕까지 박씨가 왕위를 이어갔다. 그러나 (8)아달라왕을 끝으로 박씨 왕계는 단절되고 (9)벌휴왕부터 석씨왕계가 이어져 김씨인 (13)미추왕을 제외하면 (16)홀해왕까지 계속되었다. (17)나물왕 이후가 김씨왕조였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8)아달라왕 이후 박씨가 다시 왕위에 오른 것은 무려 728년이 흐른 (53)신덕왕의 즉위였다.⁴³⁾ 그렇다면 (8)아달라왕대는 박씨에서 석씨로의 왕계 변화가 예고되어 있었던 시점이었다고 하겠다.

아달라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벌휴왕에 대해 『삼국사기』는 다음과 같은 묘사하고 있다.

G. 伐休尼師今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昔氏로 탈해왕의 아들 仇鄒 각간의 아들이다. 어머니의 성은 김씨로 只珍內禮夫人이다. 아달라왕이 죽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왕은 바람과 구름을 점쳐 홍수와 가뭄, 그리고 그 해의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았다. 또한 사람의 사악함과 정직함을 알았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聖人이라 일컬었다.⁴⁴⁾(『삼국사기』 권2, 벌휴이사금 즉위조)

사료 G에는 벌휴왕이 아달라왕의 아들이 없어서 國人들의 추대로 순조롭게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는 뛰어난 예지력을 가지고 있어 聖人으로 불릴 정도로 나라 사람들의 존경 대상이 되었다. 아달라왕과 왕실의 입장에서는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없는 가운데, 벌휴가 국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유력한 왕위 계승자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자신들의 불길한 미래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아달라왕과 박씨 왕실이 가졌던 불길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이 설화에서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는 상징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연오랑 설화에서 아달라왕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은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空間的 舞臺 : 왜 迎日地域인가?

이어서 연오랑 설화가 왜 영일지역을 공간적 무대로 삼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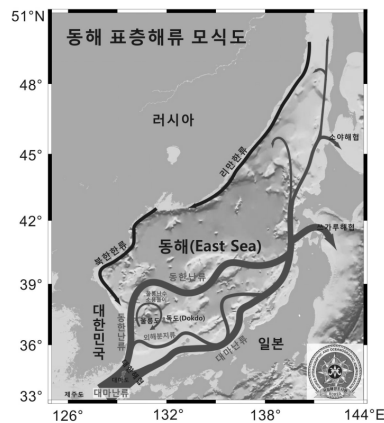
43) 신라말의 박씨왕의 실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거니와, 53대 신덕왕의 즉위로 성립된 신박씨왕계도 54대 경명왕-55대 경애왕까지 3대에 이르러 다시 단절되고 말았다.

44) “伐休尼師今立 姓昔 脫解王子仇鄒角干之子也 母姓金 氏只珍內禮夫人 阿達羅薨 無子 國人立之 王占風雲 預知水旱及年之豐儉 又知人邪正 人謂之聖”

로 하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영일이 동해 바다에 접한 해변 지역이라는 입지조건이다. 곧 동해를 건너 일본 땅으로 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더구나 동해에는 해류가 흐르고 있어, 물길만 잘 만나면 큰 어려움 없이 일본에 도착할 수 있는 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었다.⁴⁵⁾

이를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래의 [그림 1]이다. 이 ‘동해 표층해류 모식도’는 최근 수집된 신자료를 종합하여 해양환경조사원이 작성·발표한 것으로 종래의 이해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⁴⁶⁾ 지도를 보면 동해로 쓰시마난류[對馬暖流]가 대한해협을 연중 유입됨을 알 수 있다. 이 쓰시마난류는 대한해협에서 그 本流와 東韓暖流로 나뉘는데, 지류인 동한난류는 동해안을 따라 흘러 북위 약 37~38° 부근까지 따뜻한 바닷물을 공급한다. 그런데 이 동한난류는 그 일부가 영일만 부근에서 分枝·離岸하여 蛇行하면서 동쪽으로 흘러 울릉도·독도 인근 해역을 지나간다. 그리고 계속 동쪽으로 흘러 쓰시마난류 본류에 합류하여 일본의 쓰가루해협과 소야해협을 통해 북서태평양으로 빠져 나가게 된다. 이러한 해류의 흐름을 탄다면 한반도 동해안, 특히 영일지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거기에서 겨울철에 부는 북서계절풍을 등에 업는다면 일본열도의 동해 연안지역까지 한결 용이하게 도달할 수가 있다. 영일지역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해류의 특징과 일본 열도까지의 항해상의 용이함이 결국 연오설화에서 영일지역이 공간적 무대가 된 기본적인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림 1] 동해 표층해류 모식도

이에 대해 일본열도의 왜인들은 쓰시마섬[對馬島]을 중간 거점으로 삼아 대한해협에서 쓰시마난류에서 나누어진 동한난류를 타고 한반도 동해안 지역을 빈번히 침략하였다. 이런 항해에서 여름철의 남동계절풍의 도움을 받는다면 항해가 더욱 쉬웠을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왜인들의 신라 침입기사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런 해류의 흐름과 남동계절풍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견해⁴⁷⁾는 충

45)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교류에서 동해의 해류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급이 있었다. 예컨대 中田薰, 『古代日韓航路考』, 『古代日韓交渉史斷片考』, 創文社, 1956; 尹明喆, 『海路를 통한 선사시대 韓日 兩地域의 문화접촉 가능성 검토』, 『韓國考古史學報』 2, 1989; 『海洋條件을 통해서 본 古代韓日關係史의 이해』, 『日本學』 14, 1995 참조.

46) 국토해양부 2011년 12월 15일자 보도자료 참조.

분한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참조하면 동해변에 위치하였고, 배의 정박이 용이한 영일만을 끼고 있는 영일지역에 왜가 자주 침입했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신라 상고기 기사에서 왜인의 주된 침입로 중 하나로 기록된 沙道城이 주목된다.

H-1. 조분이사금 4년(233) 5월에 왜의 군사가 동쪽 변경을 노략질하였다. 가을 7월에 이찬 우로가 왜인과 沙道에서 싸웠는데,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놓아 배를 불태우니 적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모두 죽었다.(『삼국사기』 권2, 조분이사금 4년조)

H-2. 유례이사금 9년(292) 여름 6월에 왜의 군사가 沙道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으므로, 일길찬 大谷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고 지키게 하였다.(『같은 책』 유례이사금 9년조)

H-3. 유례이사금 10년(293) 봄 2월에 沙道城을 고쳐 쌓고 沙伐州의 부유한 백성 80여가를 이주시켰다.(『같은 책』 유례이사금 10년조)

사료 H에 보듯이 沙道城은 신라의 동쪽 변경 바닷가 지역이었으며, 왜의 주된 침입로에 위치하였다. 그래서 신라는 이곳에 성을 쌓고 군사를 주둔시켰으며, 293년에는 사벌주의 유력자들을 이곳으로 徙民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사도성은 어디로 비정할 수 있을까? 사실 고대의 지명을 현재 위치로 비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근거가 박약하여 다양한 說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에는 편찬자들이 이름만 남아 있고 어딘지를 알 수 없는 지명을 ‘三國有名未詳地分’이라는 제목 아래 모아 두었는데, 사도성도 그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위치 비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사도성이 사료에서 신라의 동쪽 변경의 어느 해변에 위치한 왜의 주된 침입로라는 점에 착목하여, 이를 포항시 장기면(구 영일군 只沓面)으로 비정하는 견해⁴⁸⁾는 설득력이 있다. 이를 따르면 영일지역은 왜인들의 주된 침입로 중의 하나이면서, 한반도 동해안에서 일본열도로 가는 고대 항로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겠다. 이렇게 영일지역은 왜와의 접촉이 빈번했던 곳이었으므로, 연오랑과 세오녀가 이곳을 떠나 일본으로 갔다는 설화가 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 아달라왕이 친히 순행한 사실이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I-1. 아달라이사금 9년(162) 沙道城에 순행하여 戍卒들을 위로하였다.(『三國史記』 권2, 아달라이사금 9년조)

고대사회에서 국왕의 지방 순행은 그리 흔치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달라왕은 사도성을 순행한 것은 이곳에 왜의 침입을 방어하는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달라왕의 왜를 방어하는 거점에 대한 관심은 동 4년(157)에 長嶺鎭 순행하여 戍卒들을 위로하고 각자에게 군복을 내려 준 데서도⁴⁹⁾ 나타나 있다.

I-2. 소지마립간 15년(493) 가을 7월에 臨海鎭과 長嶺鎭 두 진을 설치하여 왜적에 대비하였다.(『삼국사기』

47) 旗田巍, 「三國史記新羅本紀の倭」,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19, 1973.

48) 中田勳, 앞의 논문, 139쪽; 李基東, 「于老傳說의 世界」,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187쪽. 한편 이를 경남 함안군 竹南面 혹은 경북 영덕군 영덕면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李丙燾, 『國譯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22쪽) 설득력이 약하다.

49) “三月 巡幸長嶺鎭 勞戍卒 各賜征袍”(『三國史記』 권2, 아달라이사금 4년조)

권3, 소지마립간 15년조

사료에 보이듯이 장령진은 소지마립간 15년(493)에 왜적에 대비하여 설치된 鎭이었다. 그렇다면 아달라왕이 재위 4년에 순행한 장령진이라는 지명은 후대의 명칭을 소급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아달라왕대에 이미 훗날 장령진이 설치되는, 왜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일정 규모의 군사를 주둔시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장령진의 위치 역시 『삼국사기』의 「삼국유명미상지분」조에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비정이 쉽지 않지만, 『東國輿地勝覽』 권21, 慶州府 驛院條의 “長嶺院 在府東二十五里”라는 기록을 참조된다. 여기에는 경주부 동쪽 25리 지점에 조선시대의 장령원이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이곳이 신라의 장령진이 아닐까 한다.⁵⁰⁾ 그렇다면 長嶺鎭은 왜인들이 사도성을 거쳐 수도인 금성으로 침입해 오는 길목에 설치된 방어거점이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아달라왕이 이례적으로 장령진과 사도성에 친히 순행을 나갔던 것은 영일지역을 거쳐 금성으로 침입해 오는 왜인들을 방어하는 중요 거점이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사도성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도 연오설화에서 아달라왕대의 영일지역을 공간적 무대로 삼고 있는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영일지역이 설화의 공간적 배경이 된 또 하나의 이유로는 이곳이 祭天儀禮 내지 日月神에 대한 숭배의례가 행해지던 祭場이 있었던 곳이라는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설화의 “祭天所名迎日縣 又都祈野”를 제외하면, 영일지역에 하늘에 제천의례가 행해진 제장이 있었다는 기록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허구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신라에서 일월신에 대한 숭배의례가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J-1. 風俗·刑政·衣服은 대략 高麗·百濟와 같다. 매년 정월 초하루 아침에는 서로 賀禮하며, 왕은 연회를 베풀어 여러 관원[群官]에게 차례로 음식을 내려주며, 그날 日月神에게 절을 한다. 8월 15일에 이르면 樂을 베풀고, 관원으로 하여금 활쏘기를 시켜 말과 배로써 상을 준다.⁵¹⁾(『隋書』 권81, 列傳 46, 新羅國)

J-2. 風俗·刑政·衣服은 대략 高麗·百濟와 같다. 매월 초하루 아침에는 서로 賀禮하며, 왕은 연회를 베풀어 여러 관원[群官]에게 차례로 음식을 내려주며, 그날 日月神主에게 절을 한다. 8월 15일에 이르면 樂을 베풀고, 관원으로 하여금 활쏘기를 시켜 말과 배로써 상을 준다.⁵²⁾(『北史』 권94, 列傳 82, 新羅)

J-3. 그 나라의 風俗·刑法·衣服은 대략 高麗·百濟와 같으나, 朝服은 흰색을 숭상한다. 산신에게 제사하기를 좋아한다. 식기로는 버드나무 그릇을 쓰는데 또한 구리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國人은 金·朴 양성이 많으며, 異姓과는 혼인하지 않는다. 元日(정월 초하루)을 중히 여겨 서로 하례하고 잔치를 베풀며, 매년 그날에는 日月神에게 절을 한다. 또 8월 15일을 중히 여겨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베풀어 군신에게 내려주며 그 뜰에서 활쏘기를 한다.⁵³⁾(『舊唐書』 권199上, 列傳 149上, 新羅國)

J-4. 王姓은 金이고 貴人의 성은 朴이며, 백성은 氏가 없고 이름만 있다. 먹는 데는 버드나무 그릇을 쓰는데

50) 정구복 외, 『개정증보 譯註 三國史記』 4(주석편 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396쪽.
51) “風俗·刑政·衣服 略與高麗·百濟同 每正月旦相賀 王設宴會 班賚羣官 其日拜日月神 至八月十五日 設樂 令官人射 賞以馬布”(『隋書』 권81, 列傳 46, 新羅國)
52) “風俗·刑政·衣服略與高麗·百濟同. 每月旦相賀, 王設宴會, 班賚羣官. 其日拜日月神主. 八月十五日設樂 令官人射 賞以馬·布.”(『北史』 권94, 列傳 82, 新羅)
53) “其風俗·刑法·衣服 與高麗·百濟略同, 而朝服尙白 好祭山神 其食器用柳栝 亦以銅及瓦 國人多金·朴兩姓 異姓不爲婚 重元日 相慶賀燕饗 每以其日拜日月神 又重八月十五日 設樂飲宴 賚羣臣 射其庭(『舊唐書』 권199上, 列傳 149上, 新羅國)

또한 구리나 질그릇을 쓰기도 한다. 정월 초하루에는 서로 축하하며 그날 日月神에게 절을 한다.⁵⁴⁾(『新唐書』 권220, 列傳 145, 新羅)

J-5. 그 나라 풍속에 重九日(9월 9일)에는 서로 경하하며, 매년 그 달에 日月神에게 절을 한다.⁵⁵⁾(『舊五代史』 권138, 外國列傳 2, 新羅)

J에서 보듯이 中國 正史 新羅傳의 5종의 사료에 모두 신라에서 일월신에 대한 숭배가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다만 숭배의례를 행한 시기가 사료에 따라 정월 초하루(『隋書』·『舊唐書』·『新唐書』), 매월 초하루(『北史』), 重九日이 있는 9월(『구오대사』) 등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신라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편찬된 『隋書』·『舊唐書』·『新唐書』 신라전에 기록된 ‘정월 초하루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신라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신년하례와 함께 일월신에 대한 숭배의례를 거행했던 셈이다.

자료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는 이 일월신 숭배의례가 국왕이 주도하는 국가적 제사의례와는 차원이 달랐다는 사실이다. 『구당서』와 『신당서』 고구려전에는 靈星神·日神 등에 대해 “국왕이 스스로 ‘祭’를 지낸다.[王自祭之]”라고 하였고,⁵⁶⁾ 『수서』 백제전에도 “왕이 天神과 五帝神에게 ‘祭’한다.[王祭天及五帝之神]”⁵⁷⁾는, 국왕이 주관하는 국가적 제사의례를 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료 J를 보면 신라의 일월신에 대한 숭배의례는 국왕이 주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 용어도 ‘祭’가 아닌 ‘拜’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신라의 일월신에 대한 숭배의례가 국왕 주도의 국가적 제사의례보다는 그 격이 낮았음을 시사한다. 祭場이나 절차 등 일월신 숭배의례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기록은 없다.

여기서 상기되는 것이 연오설화의 영일지역에서 행해진 ‘祭天’이 해와 달이 빛을 잃는 天變에서 비롯되었으며, 제천의 결과 해와 달이 원상회복되었다는 언급이다. 이는 신라의 제천의례의 구체적인 제사대상 곧 神格이 日神과 月神(日月神)이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신라에서 일월신 숭배의례가 행해진 제장도 ‘都祈野’로 기록된 영일의 어떤 지점이 아니었을까 한다. 왜냐하면 신라의 일월신 숭배의례는 국왕이 주관하는 국가적 제천의례보다 그 격이 낮았고 국왕이 親祀하는 제사와도 달랐던 것은 그것이 왕경이 아닌 지방에서 시행되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천’은 고구려와 백제에서 보듯이 원래 국왕의 親祀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영일지역에서 행해진 신라의 ‘제천’도 원래는 국왕의 친사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신라의 일월신 숭배의례는 국왕이 친사하는 국가적 제사 중의 하나가 아니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主祭者와 儀禮의 격이 떨어진 것으로 제사제도의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국왕 친사의 제천의례가 거행되었고, 일월신 숭배의례로 변화하고서도 제장으로 기능했던 영일지역은 통일기 이후 대대적인 제사제도의 개편으로 일월신이 아닌 다른 신을 제사하는 제장으로 다시 바뀌었다. 『삼국사기』 제사지의 다음 기록에서 그 실마리를 잡

54) “王姓金 貴人姓朴 民無氏有名 食用柳杯若銅瓦 元日相慶 是日拜日月神”(『新唐書』 권220, 列傳 145, 新羅)

55) “其國俗重九日相慶賀 每以是月拜日月之神”(『舊五代史』 권138, 外國列傳 2, 新羅)

56) “其俗多淫祀 事靈星神·日神·可汗神·箕子神 國城東有大穴 名神隧 皆以十月 王自祭之”(『舊唐書』 권199上, 列傳 149上, 高麗)

“俗多淫祠 祀靈星及日·箕子·可汗等神 國左有大穴曰神隧 每十月 王皆自祭”(『新唐書』 권220, 列傳 145, 高麗)

57) “每以四仲之月 王祭天及五帝之神 立其始祖仇台廟於國城 歲四祠之”(『隋書』 권81, 列傳 46, 百濟)

을 수 있다.

K.中祀

五岳 <생략>

四鎮 <생략>

四海 동쪽은 阿等邊(斤烏兄邊이라고도 하였다. 退火郡), 남쪽은 兄邊(居柒山郡), 서쪽은 未陵邊(屎山郡), 북쪽은 非禮山(悉直郡)이다.

四瀆 <생략>

俗離岳(三年山郡) <이하 생략>(『三國史記』 권32, 제사지)

제사지에 의하면 신라는 종묘제와 사직제 외에 각종의 국가제사를 大祀·中祀·小祀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었다. 이러한 국가적 제사제도는 당의 제사제도를 참조하여 태종무열왕대 이후 점진적으로 정비했던 통일신라의 새로운 제사제도였다.⁵⁸⁾

사료 K를 보면, 신라는 중사를 다시 五岳祭·四鎮祭·四海祭·四瀆祭·기타로 나누었는데, 사해제는 東海·南海·西海·北海의 海神에게 지내는 제사로서 그 祭場이 대체로 해변에 위치하였다.⁵⁹⁾ 그런데 동해제를 지낸 제장은 阿等邊 또는 斤烏兄邊이며, 그곳은 퇴화군에 속한 곳이라고 하였다. 퇴화군은 의창군으로 개명되기 전의 명칭으로 현재의 흥해읍에 치소를 두고 있었던 행정구역이었다. 그 아래에 6개의 領縣을 거느렸는데, 그 중의 하나로 斤烏支縣(경덕왕대 臨汀縣으로 개명)이 있었다. 따라서 일단 아등변(근오형변)은 지명이 흡사한 근오지현의 해변으로 비정할 수 있지만, 더욱 확실한 근거가 있다.

아등변의 다른 이름인 ‘斤烏兄邊’이 원래는 ‘斤烏只邊’으로서, 후대의 판각 과정에서 ‘只’를 ‘兄’으로 誤刻한 것이라는 지적이 그것인데,⁶⁰⁾ 실로 타견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동해제가 거행된 제장은 ‘斤烏只邊’ 곧 ‘斤烏支邊’으로서 근오지현의 해변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현재의 포항시 영일읍인 근오지현에 신라의 동해제가 거행된 제장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제사지의 동해제 제장과 하늘 혹은 일월신에게 제사를 지낸 제장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제사지에 수록된 국가제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삼국사기』 편찬자의 평가가 눈길을 끈다.

K.대개 王制에 “천자는 七廟요 제후는 五廟이니, 二昭·二穆과 太祖의 묘를 합하여 다섯이 된다.”라고 하였고, 또 “천자는 天地와 천하의 名山大川에 제사지내고, 제후는 社稷과 그의 땅에 있는 명산대천에 제사지낸다.”고 하였는데, (신라는) 이 때문에 감히 예를 벗어나지 않고 실행한 것인 듯하다.(『三國史記』 권32, 제사지)

곧 『삼국사기』 편찬자는 신라가 『禮記』 왕제편의 규정에 따라 천자의 수준이 아니라 제후 수준의 국가적 제사제도를 시행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통일기의 신라는 제후 수준으로 국가적 제사제도를 개편·정비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라는 『예기』 왕제편에서

58) 신라의 국가제사에 대해서는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76;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2008 참조.

59) 北海祭를 지낸 곳이 실직군(삼척군)의 非禮山으로 나오고 있어 특이해 보이지만, 아마 비례산은 바닷가에 있는 작은 구렁이 아닐까 추정되므로 역시 제장이 해변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다.

60) 李丙燾는 斤烏兄邊의 兄은 원래 ‘只’였는데 후대의 판각 과정에서 ‘只’가 ‘兄’으로 誤刻된 것으로 보았다.(『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500쪽)

천자만이 지내도록 규정된 天神과 地神에 대한 제사를 국가적 제사제도에서 제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제사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상고기 이래 전통적으로 제천의 제장이자 일월신 숭배의례의 장소였던 근오지현의 제사도 변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祭天이나 日月神에 대한 숭배의례 대신 동해신을 제사하는 동해제의 제장으로 변화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삼국사기』 제사지에서 동해제의 제장으로 기록된 근오지현(영일지방)이 원래 제천의례 혹은 일월신에 대한 숭배의례가 행해졌던 제장이 위치했던 곳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점이 바로 연오설화에서 영일지역이 공간적 무대가 된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연오설화에서 왜 영일지역이 공간적 배경으로 나오게 된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신라시대에 영일지역에서 제천의례가 시작된 시기에 대한 약간의 추론을 덧붙이고 싶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지역은 일본열도와 용이하게 통할 수 있는 곳으로서 오랫동안 왜인들의 침입로가 되어 왔다. 신라로서는 빈번히 피해를 입히는 왜의 침입과 약탈을 방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왜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 지역에 사도성을 쌓고 군사를 주둔시키기도 하였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이 사도성에 최초로 관심을 가진 왕이 바로 아달라왕이었다. 그리고 연오설화에는 이 지역에서의 제천의례가 처음 시작된 시기가 아달라왕대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비록 설화로 윤색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달라왕이 처음으로 이곳에 순행하고 하늘에 제사를 올려 왜적의 침입과 같은 국가적인 우환이 없어지기를 빌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성립된 국왕 親祀의 제천의례는 다시 일월신에 대한 숭배의례로 격이 떨어졌다가 통일기 이후 새로운 국가적 제사제도가 정비되면서 四海祭의 하나인 東海祭로 변모하였지만, 연오설화에서 아달라왕 시대가 시간적 배경이 되고 영일(포항)지역이 그 공간적 무대로 남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2~3세기대의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정세와 교류를 살펴보고, 그 토대 위에서 연오설화에서 왜 하필 아달라왕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영일지역을 공간적 무대로 삼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각도에서 추구해 보았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연오설화의 내용이 전부 사실일 수 없지만, 그 속에서는 설화의 꼬투리가 될 만한 역사적 사실이 숨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2~3세기대 한반도 남부지역의 정세를 보면, 선주 토착세력들이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정치경험과 선진 문물을 가진 북쪽에서 남하해 온 후래 이주민세력에 밀려 연고지를 빼앗기고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과정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했던 일본열도를 새로운 개척 대상으로 주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2~3세기대의 일본 열도에서는 비록 야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가 주도하는 왜국이라 칭해지는 단일정권이 성립되기는 했지만, 그 세력이 미치는 범위는 서부 일본에 한정되었다. 그러므로 한반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간 세력들은 당시의 일본 토착민보다는 선진적인 철기문명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왜국의 범위에서 벗어난 다른 지역에 정착하여 지배자로 군림할 여건이 충분하였다. 이렇게

보면 연오설화는 한반도를 떠나 일본열도의 어느 곳에 정착한 이주민 세력이 지배자로 군림했던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성립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영일지역의 선주 토착세력이 새로 이동해 온 이주세력에게 밀려 일본열도로 건너가 그곳에 정착하여 지배자로 성장한 사실이 투영된 설화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아달라왕대가 시간적 배경이 된 이유는 그 시대가 신라 상고기 가운데서 왜와 가장 우호적인 시기였으며, 또 국내적으로 석씨에게로 왕위를 넘겨주어야하는 불길한 미래를 예상할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가고 나자 해와 달이 빛을 잃는 변괴가 일어났다는 등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영일지역이 공간적 무대가 된 이유로는 이 지역이 바다를 통해 일본 열도로 가기가 용이한 곳이라는 점, 동해의 해류를 이용하면 쉽게 일본 열도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일 뿐더러 2~3세기대 왜인의 주된 침입로 중의 하나였던 사도성이 설치된 지역으로 왜와의 접촉이 빈번했던 곳이라는 점, 새로운 국가적 제사제도의 시행으로 제천의례와 일월신 숭배의례가 국가적 제사제도에서 제외되기까지 영일지역인 근오지현이 그 祭場으로 기능했던 점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근오지현에서 제천의례가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달라왕대일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는데,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왜 연오설화가 아달라왕대의 영일지역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지가 좀 더 분명해 질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古事紀』, 『舊唐書』, 『舊五代史』, 『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隋書』, 『新唐書』, 『日本書紀』, 『漢書』, 『後漢書』.

國立慶州博物館, 『玉城里 古墳群』 I · II · III, 1994.

배용일, 「연오랑 세오녀 일월신화연구」, 『제1회 포항정신문화 학술심포지엄』, 포항정신문화발전연구회, 2010.

소재영, 「연오 · 세오 설화고」, 『국어국문학』 36, 1967.

신상구, 「<延烏郎 細烏女> 說話의 研究史 考察」, 『연오랑세오녀연구소 제3회 한·일 국제세미나 자료집』, 2012.

연민수, 「5세기 이전 신라의 대왜관계 - 『삼국사기』 왜 관계 기사를 중심으로 -」,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嶺南文化財研究院, 『浦項玉城里古墳群』 I · II, 1998.

오영찬, 『낙랑군연구』, 사계절, 2006.

尹明喆, 「海路를 통한 선사시대 韓日 兩地域의 문화접촉 가능성 검토」, 『韓國考古史學報』 2, 1989.

尹明喆, 「海洋條件을 통해서 본 古代韓日關係史의 이해」, 『日本學』 14, 1995.

李基東, 「于老傳說의 世界」,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李文基, 「統一新羅의 地方官制 研究」, 『國史館論叢』 20, 1990.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77.

이상준, 「연오랑 세오녀 설화의 현장」, 『연오랑세오녀연구소 제1회 한일국제세미나 논문집』, 2010.

李成市, 「你軍墓誌 연구」, 『木簡과 文字』 10, 2013.

이연숙, 「연오랑 세오녀에 대한 일고찰」, 『국어국문학』 23, 1959.

李熙德, 「新羅時代의 天災地變」, 『東方學志』 82, 1993.

정구복 외, 『개정증보 역주 三國史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차순철, 「포항 흥해지역의 역사 · 고고학적 고찰」, 『浦項 中城里新羅碑 발견 기념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09.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76.

旗田巍, 「三國史記新羅本紀の倭」,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19, 1973.

- 大手前大學史學研究所, 『弥生・古墳時代銅鏡出土狀況資料集 : 日本考古學協會2010年度兵庫大會第2分科會「古墳出現過程と銅鏡」-』, 2010.
- 武末純一, 「<倭國>の誕生」『東アジア世界の成立』(日本の對外關係 1), 吉川弘文館, 2010.
- 三品彰英, 『日鮮神話傳説の研究』, 1963.
- 森浩一 編, 『鏡』, 社會思想社, 1978.
- 仁藤敦史, 「邪馬台國からヤマト王權へ」, 『東アジア世界の成立』(日本の對外關係 1), 吉川弘文館, 2010.
- 田中琢, 『倭人爭亂』(日本の歴史 2), 集英社, 1991.
- 田薰, 「古代日韓航路考」, 『古代日韓交渉史斷片考』, 創文社, 1956;
- 川勝守, 『三角緣神獸鏡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2012.
- 出羽弘明, 『新羅の神々と古代日本: 新羅神社の語る世界』, 同成社, 2004.

투고일 2013. 10. 31 심사시작일 2013. 11. 06 심사완료일 2013. 12. 03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ale on the Yeonorang(延鳥郎) and Seoyeo(細鳥女) seen from the Situation and Interchang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Islands in the 2nd~3rd Century

Lee, Moon-ke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establish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ale on the Yeonolang and Seonyeo. The conclusions are following.

At southern area in the Korean Peninsula, it usually happened that the resident had to leave their hometown and find a newly settled area from 2nd to 3rd century, because immigrants who had gotten advanced political experiences and advanced culture took the resident's hometown. In particular, the situation of Yeongil area was same as that. In addi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Silla, Yeongil area was about to merge with Silla. The Yeonolang and Seonyeo symbolize the resident that leaving Yeongil area and could not stand the pressure.

The group of Yeonolang focused on the Japanese islands as their newly settled are, because Yeongil residents were connected with Japanese frequently from 2nd to 3rd century. Meanwhile, queen Himiko[卑彌呼] was inducted into king at the end of 2nd century in Japan, so there was a unitary government that governed loosely in west Japan. However, Himiko's power was limited to west Japan.

For that reason, It was possible that the resident who left Korea and crossed into Japan got ruler positions in some area except west Japan, because they got advanced ironware culture and plenty of political experiences. According to situation between Yeongil and Japanese island, Yeonolang's tale is based on historical facts that the people who left Yeongil in Korea and settled in Japanese island became the ruler.

The reasons that the tale is based on king-Adalla era are following. First,

that period was the most friendly time between Silla and Wa. Because of that, the period that Yeonolang was inducted into the king in Japanese island was based on king-Adalla era. On the other hand, king-Adalla era was expected an ominous future to king-Adalla and Park's royal family, because at that time was the very moment that the throne was changed from Park to Seok. Therefore, it can be assumed that the ominous future of king and royal family became the story that the sun and the moon lost sunlight and moonlight.

The reasons why Yeongil area was based on the tale are following. Yeongil area was easy to get Japanese island by ocean current and seasonal wind. In addition, Sadosung which was one of the Japanese' invasion routes was installed during 2nd and 3rd century in Yeongil area and it was easy to get informayion which was related to Japanese island because there were connections between Japanese and Yeongil area.

Keywo
rd

the Tale on the Yeonorang(延鳥郎) and Seoyeo(細鳥女), king-Adalla, queen Himiko[卑彌呼], Yeongil area.